

OEHANA



www.pcce.wmu.edu Issu Date Sep. 2024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예수님의 어린이관 : 막 9:33-37과 10:13-16
을 중심으로 / 남종성

10_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

12_ PRAYER FOR CHILDREN

천국의 모형이 되는 온전한 가정

14_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한가위, 가족과 함께 하는 보드게임 '웃놀이'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만드는 전통 떡 '송편'

16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9월, 10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예수님의 어린이관 : 막 9:33-37과 10:13-16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온다. 하나는 막 9:33-37이고 또 하나는 막 10:13-16이다. 이 두 이야기를 주석적으로 살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아이들의 가치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어린이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린이 교육에 대한 자세나 열정 그리고 마음가짐이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문맥을 살펴보고 이 문맥에서 마가복음이 의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린이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웠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밝힐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막 9:33-37과 막 10:13-16의 문맥적 위치

[막 9:33-39]

[33]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막 10:13-16]

[13]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

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니 축복하시니라.

위의 두 본문은 막 8:22-10:52의 큰 단락 속에 포함된 에피소드들이다. 이 큰 단락은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길 위에서'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길' (ὁδός 호도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가는 도상을 말한다. 마가는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자신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길'(호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개의 어린이 이야기가 들어 있는 전체적인 구조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상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어린이 이야기 역시 죽기 위해 가시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매우 심각하고도 의미있는 가르침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 주고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다. 고침받은 맹인들처럼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약시대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의 어린이관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만 그리스-로마 가정에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건강하고 힘있는 아이들만 양육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자녀가 기형아이거나 여아나 병약한 아이는 버려지기도 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심이 될 때도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이런 아이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노예 장수들이 데려가곤 했다. 물론 상류층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도 받고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는 평민들이나 하층민들의 경우는 이러하였다.

브루스 말리나 (Bruce J. Malina)는 신약시대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견해와 오늘 미국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미국인들은 아이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의 태도와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지만,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특성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접근을 했다.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고, 자기 본위적이며, 속임수를 잘 쓰며, 교활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각하고도 긴박한 가르침에 반해 제자들의 이해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가는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두 개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큰 이야기 (막 8:22-10:52)의 서사적인 구조를 인클루시오 (inclusio) 기법으로 처리를 했다. 마가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맹인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한 것이다. 벳새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막 8:22-26)로 시작을 해서, 예리고에서 맹인 바디매오를 고치는 이야기 (10:46-52)로 끝을 맺는다.

마가가 이런 서사적인 구조를 취한 것은 제자들의 이해의 둔함을 말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학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Christian Education Column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은 아이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려고 노력하지만, 신약시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자녀의 감정과 역량들을 묵살하고 자녀의 적개심과 반항심이 커질 때 그들을 제압하기위해 부모는 더 큰 폭력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현대 미국의 부모는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과 역량들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반면에 지중해 연안의 부모는 자녀들을 미리 정해진 틀속에 집어 넣어 교육했고 고집 부리는 나쁜 행동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훈육방식이 위험, 징계, 때로는 폭력이나 범죄에 이르는 정도로 심각할 수준이었다.

이렇게 고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로마 시대의 아이들의 인격은 무시되었고 작고 천하게 여겨졌다. 유대인들 역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지만 자녀들의 기본 가치는 성인 어른들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숫자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여자와 어린이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이 쓰여질 당시의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성경에서 아이들이 등장할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신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첫 번째 어린이 이야기 (막 9:33-37)의 주제 및 강조점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어린이 이야기 (막 9:33-37)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쟁론을 벌였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 교훈을 하신 장소가 ‘집’(οἶκος 오이코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태의 경우는 배나 산에서 교훈하시는 모습을 볼 수있는 반면, 마가의 경우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7:17; 9:28; 9:33; 10:10 등).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집은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은밀한 가르침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온다 (4:10; 7:17; 9:11, 28; 13:3). 이럴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장소가 집이 배경이 될 때가 많다. 예수님도 종종 집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다 (막 9:33). ‘집’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르침의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속에서 중요하

면서도 기억에 남을 교훈을 하고계신 것이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누가 크냐는 쟁론을 벌인 것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9:36)고 하셨다. 그러신 다음에 ‘어린이’(παῖδιον 파이드ιον)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9:37).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교훈하고 계신 것이다. 이 교훈에서 예수님의 어린 이관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어린이관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린이 나 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생각할 때가 많다.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약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드온’(παῖδιον)이라는 단어가 신약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대 사회에서 ‘파이드온’은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새로 태



어난 아이를 의미했다. 동시에 ‘파이디온’은 어린 노예를 가리키기도 했다. ‘파이디온’의 히브리어는 ‘나아르’ (נער)인데 이 단어 역시 종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παιδιον* 과 연관된 *παις*, *παιδαριον*, *παιδίσκη* 등도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작고 미성숙한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노예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파이디스케’ (*παιδίσκη*)는 하녀(maid)나 종(servant-girl) 뿐만 아니라 성적 노예(female slave)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이를 일반적인 어린이로만 생각하는 것은 번역의 한계를 통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본문에 대한 세밀한 주석을 행한 후, 김서준은 ‘파이디온’이 고대사회에서 식탁에서 시중을 들었던 ‘디카이오노스’(*δίακονος*)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파이디온’은 가버나움의 집에서 실제로 식탁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종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필자 역시 이런 가능성에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문의 문맥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큰 자인가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 교훈을 실물로 교훈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본으로 삼아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이 실물교훈으로 적합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가버나움의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가 베드로의 자녀일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의 자녀일까? 그 밖의 제3의 아이일까?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는 맥락과 잘 맞지 않는다.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여

기에 등장하는 아이는 매우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작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παιδιον* 파이디온)는 식탁을 섬기는 노예 출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 이 본문에 나오는 ‘파이디온’(*παιδιον*)을 이렇게 해석할때 예수의 교훈과 더 일치가 된다. 즉 예수님은 당시에 천시받고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아이를 데려와 그를 안아 주시고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함ियो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살피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서 크랜필드(C.E.B. Cranfield)는 3가지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첫 째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대변자(representative)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영접의 행위가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아이(파이디온)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함으로 예수께서는 어린 노예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있을 수 없고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노예 어린이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어린 노예아이(파이디온)를 환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어린이는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뚤어진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장애아들도 있다. 어떤 아이들은 무례하고 놀림 받을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바로 이런 유의 아이들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데려다가 안아 주시고 영접하신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과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어린이관이 오늘날 어린이 교육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어린이 이야기 (10:13-16)의 주제 및 강조점

두 번째 이야기 (막 10:13-16) 역시 집에서 일어난 것은 주목할 만 한다(10:10). '집에서' 교훈하심으로 제자들과의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를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부모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병이 들고 온전하지 못하고 천하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면 제자들이 꾸짖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제자들의 어린이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하셨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상반되어 있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제자들은 아마도 아이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즉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치유 그리고 어른들과의 대화나 만남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사고 방식에 대해서 노하셨다. 예수님의 이 격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이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 넣어 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0:14). 이 말씀 역시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가치 선언을 강력하게 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τῶν τοιούτων" (톤 토이우톤)으로써 소유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도 구성된 (consist of such)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에게 속한 (belongs to such) 것이라라는 의미이다 (마 5:3, 10).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다.

막 1:15에 의하면 예수 그 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 자신들의 장점이 많은 사람들, 공로가 많은 사람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속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어린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능력있고 강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아이를 이런 관점에서 교육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막 10:15를 새롭게 읽기

막 10:15는 두 번째 어린이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핵심구절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세심한 주석이 필요하다. 10:15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다. "진실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멘' (אָמֵן)이다. 이 단어의 독특한 의미 때문에 헬라어에서도 그냥 음역을 하여 ἀμήν (amen)으로 쓰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멘'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복음서에서 이 '아멘'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만 말해진다. 말해진다. 아멘(ἀμήν) 다음에는 λεγω ὑμῖν (σοι) (내가 너희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항상 따라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표현한다. 제롬과 같은 사람은 이런 '아멘-형식' (amen-formula)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 막 10:15이다.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즉 “어린아이”를 주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ὃς ἂν μὴ δέξηται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ὡς παιδίον(기존번역: “어린 아이와 같이.” 이 구절의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막 10:15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οὐ μὴ εἰσέλθῃ εἰς αὐτή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로 되어 있다. “ὡς παιδίον”(호스 파이다온)이라는 구절을 기존 성경들은 주격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ὡς παιδίον”에서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린아이를 받아 들임같이”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를 받아 들임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 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 목회자들은 “어린아이”를 주격으로 번역한 성경에 근거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를 한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큰 맥락에서 보아도 “어린아이”를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본문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맥락인 막 8:22-10:52은 제자도의 교훈을 주고 있다. 작은자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된 주제이다 (9:37, 42; 10:14, 44-45).

김서준은 막 10:15의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읽는 것이 문법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한 그 뜻을 더 잘 드러낸다고 파악한다. 필자 역시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고, 예수님의 강조점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는데 동의한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하고 보잘 것 없게 보이는 낮은 자인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병들고 천하게 여겼던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가는 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2개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대할 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주석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이 (파이다온)는 오늘 문명사회에서 보는 어린이관하고 매우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다.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바라 보았던 어린이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소고는 ‘파이다온’의 언어적 관찰과 신약 당시 어린이에 대한 문화적 상황, 그리고 이야기들의 서사적 문맥을 살펴봄으로 예수님의 어린이관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결과 두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이 (파이다온)는 종으로 살던 아이들, 고아들, 멸시 받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문화와 습관과 생활질서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첫번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낮고 천한 노예와 같은 아이 (파이다온)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천하고 낮은 아이와 동일시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어린이관이다. 두번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제자들이 꾸짖었던 약하고 무시받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천하고 낮은 어린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막 9:42)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은 사실이다. 교회 교육보다는 교회 밖의 교육이 기술이나 시스템적으로 월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린이관, 예수님의 교육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세상의 어떤 교육 정책도 예수님의 시각에서 구현하는 기독교 교육을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막 4:10)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우리가 병이나 너무나 슬픈 일, 유혹이나 실망, 환난, 실연,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홀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주의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 14:26).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의 슬픔과 난처함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혼돈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 안에는 성령에 의해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을 입은 자임을 입증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들의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리며 언제나 들려오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인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너,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 4:19)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 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뵈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



Prayer for Children

천국의 모형이 되는 온전한 가정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천국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계신 것처럼 지상의 작은 천국인 우리 가정의 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좌정하시옵소서.

풍랑이 일거나 거친 바람이 불 때에, 금방이라도 우리 가정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계시므로 안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시면 침몰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가정,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가정되게 하소서.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있는 천국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돌리는 가정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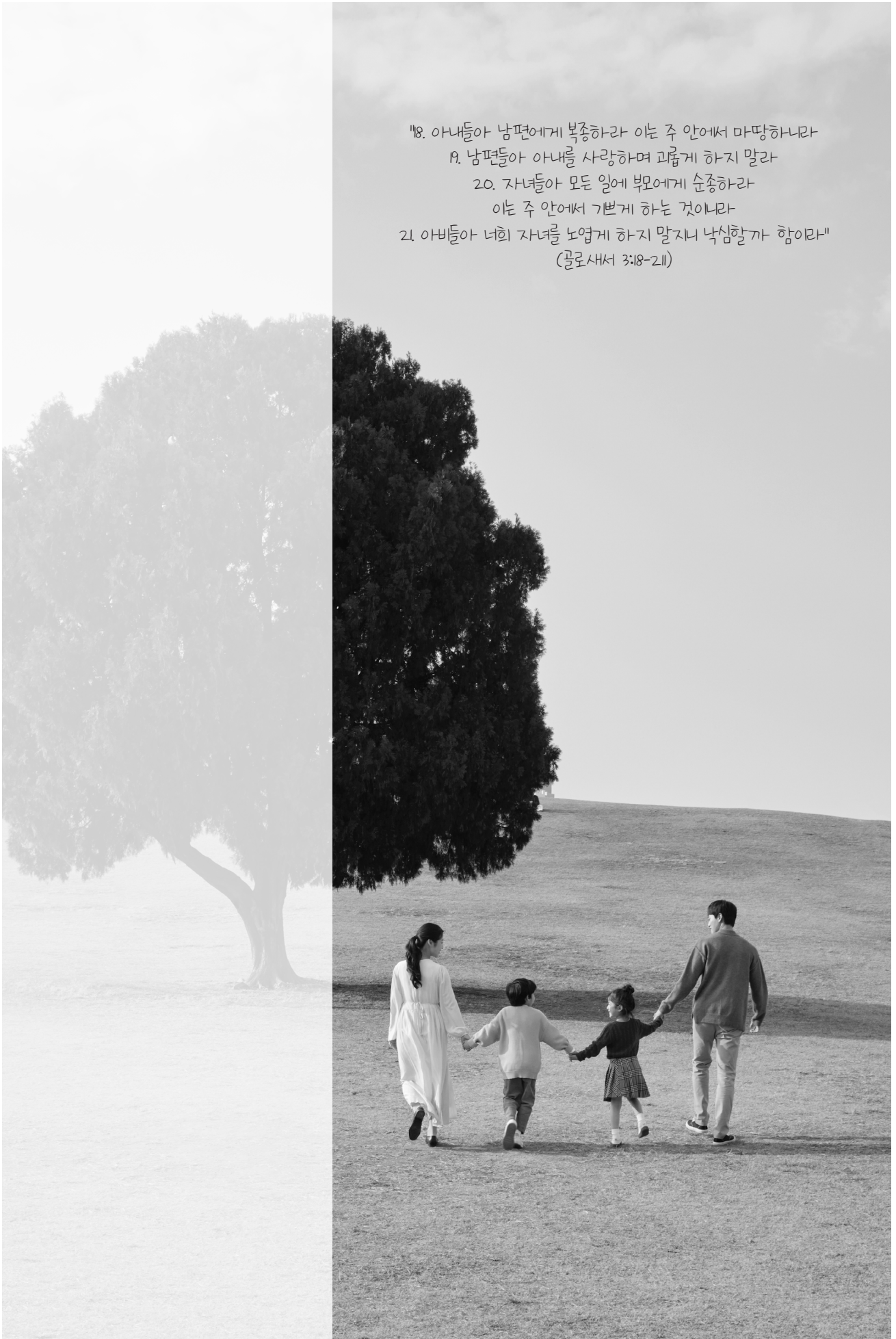
세상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그 모든 눈물이 씻어지게 하소서. 가족 간에 있던 갈등도 다 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에 있던 모든 상처도 깨끗이 치유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거룩한 흰옷을 입게 하소서. 복음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영적 핏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여 저마다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고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18-21)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한가위, 가족과 함께 하는 보드게임

'윷놀이'

[유래]

윷놀이는 4개의 윷가락을 던져 얻은 갯수[도·개·걸·윷·모]에 따라 29발으로 구성된 말판 위에 4개의 말[馬]을 이동하여 누가 먼저 말판을 빠져 나오는가를 겨루는 민속놀이이다. 백제 시대에 이미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시대에는 놀이 장면을 시로 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부여 시대의 관직 이름에서 시작된 놀이라고 하며, 29발로 구성된 윷판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모습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즐긴 대표적인 전통놀이이다.

[내용 및 놀이방법]

1. 기본 규칙

윷 4개를 던져서 놓여지는 모양에 따라 말을 이동하여, 다시 시작점으로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한다.

윷놀이 기본 규칙인 도, 개, 걸, 윷, 모는 동물을 상징하고 있다. 도는 돼지, 개는 강아지,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을 뜻한다. 도는 1칸 전진, 개는 2칸 전진, 걸은 3칸 전진, 윷은 4칸 전진, 모는 5칸을 전진한다. 뒷도(뺨도)는 1칸 후진이다. 그리고, 윷 또는 모가 나온 경우에는 1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같은 팀의 말이 겹칠 경우에는 말을 업어서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 말은 업은 경우 같이 움직이기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잡히면 한꺼번에 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



2. 윷판

말의 이동을 놓는 윷판이다. 윷판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도 되고, 간단하게 종이에 그려서 사용해도 된다. 말은 윷을 던져서 나온 것대로 움직인다. 뒷도(뺨도)를 제외하고는 전진만 있다. 말이 모 위치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나가야 한다. 돌아가는 길을 최소화하는게 승리의 지름길이다. 갈림길 때문에 말을 전략적으로 놓는게 매우 중요하다. 모 자리에서 한번도 멈추지 않는다면 크게 한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3. 한번 더 던지는 경우

윷을 던져 '윷 또는 모'가 나오는 경우, '상대방 말을 잡는 경우' 한번 더 던질 수 있다. 윷과 모로 상대방 말을 잡는 경우,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번 더 던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윷과 모로 말을 잡는 경우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1번만 던진다. 이것은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규칙이니 사전에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4. 윷과 모가 나온 경우 말의 순서

윷이나 모가 나왔을 때 말의 순서를 변경하는 걸 허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말 놓는 순서 변경을 허용한다. 예를들어 윷이 나오고 걸이 나온 경우, 말을 먼저 '걸 이동하고 '윷'으로 이동한다. 순서가 변경됨으로 인해 상대방 말을 잡을 수도 있고, 같은 팀의 말을 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윷판을 멀리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순서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됨으로 게임이 더 흥미진진해진다.



동영상 보기 : 윷놀이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공무원닷컴 : 티스토리>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만드는 전통 떡 '송편'

[대표적인 추석 음식]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 농가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집집마다 장대에 곡식 이삭을 매달아 대문간에 세워두었다가 중화절(中和節 : 2월 1일)에 이것으로 송편을 만들어 노비에게 나이수대로 나누어 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을 속칭 노비일이라고 하며, 이 떡을 나이떡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은 이 때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부터 대중적으로 이어진 이 풍습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 지금은 송편이 추석의 절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송편은 소의 종류에 따라 팔송편·깨송편·대추송편·잣송편, 쑥을 넣어 만든 쑥송편, 소나무 껍질을 넣어 만든 송기송편 등이 있다.

[송편을 잘 빚으려면]

송편을 하려면 우선 멥쌀을 물에 담갔다가 뽕아 고운 체에 내린다. 물을 끓여서 소금을 넣어 쌀가루에 고루 뿌리고 오래 치대어 말랑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마르지 않도록 젖은 행주를 덮어 놓는다. 소로는 거피팔이나 동부, 녹두와 햇콩, 밤, 대추, 곱감, 들깨, 참깨 등을 넣는다. 거피팔로 소를 하려면 팔을 불려서 거피하여 무르게 찢 다음 어레미에 내려 꿀과 계핏가루를 넣고 섞는다. 동부나 녹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햇콩은 껍질째 삶아서 콩알만 까 놓고, 밤은 날로 껍질을 까서 잘게 썰거나 설렁하게 삶아도 된다. 대추나 곱감은 씨를 발라내서 잘게 썰어 놓고, 깨는 볶아서 뽕아 설탕을 섞어 놓는다.

빚을 때는 반죽을 직경 2~3cm 굵기의 막대처럼 늘여서 한 개 빚을 만큼만 떼어 손바닥에 놓고 동그랗게 굴린다.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넣어 돌리면서 우물을 파고 소를 채워서 위를 입술처럼 아물린다. 빚는 이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가지각색인데 조가비처럼 빚기도 하고 밤톨처럼 작고 앙증맞게 빚거나 손가락 자국을 깊게 내거나 크게는 아이 주먹만하게도 빚는다. 시루에 빚은 송편과 솔잎을 켜켜로 놓아 찌낸 후에 찬물에 담가 솔잎을 떼고 참기름을 발라 둔다.

[조리법]

재료(쌀 1되분)

멥쌀 5컵, 소금 1큰술, 데친 쑥 20g, 식용 색소(빨강) 약간, 끓는 물 약 1컵, 참기름 2큰술, 밤 5개, 팥콩 1컵, 소금 1작은술, 흰깨 ½컵, 꿀 2큰술

(가) 거피팔 1컵, 소금 1작은술, 꿀 2큰술, 계핏가루 약간



만드는 법

1. 멥쌀을 불려서 뽕아 체에 쳐서 삼등분하여 하나는 끓는 물을 그대로 넣어 흰색으로,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식용 색소를 약간 타서 분홍색으로, 나머지 떡가루에는 끓는 물에 데쳐 짙은 쑥을 넣어 쑥색으로 세 가지의 떡 반죽을 만들어 오래 치대어 젖은 행주를 덮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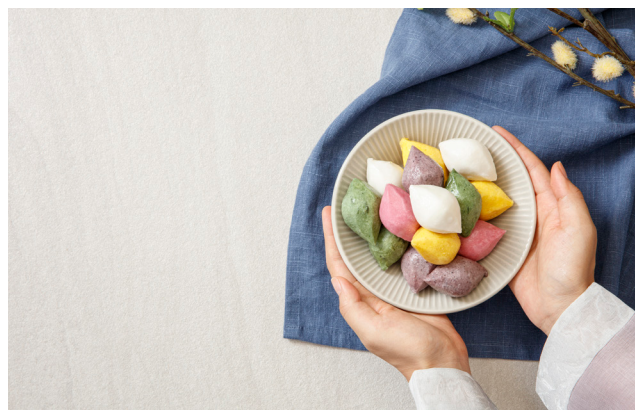
2. (가)의 거피팔을 불려 찢서 체에 내리고 소금, 꿀, 계핏가루를 넣어 직경 2cm 정도로 동글게 팔소를 빚는다.

3. 밤은 껍질을 벗겨서 서너 조각으로 썬다. 팥콩은 삶아서 깨끗이 씻어 소금을 뿌려 놓고, 흰깨는 볶아서 뽕아 꿀로 버무린다.

4. 떡 반죽을 밤알 크기로 떼어 동글게 빚은 다음 가운데를 파서 그 속에 여러 소를 넣고 아물려 조개처럼 예쁘게 빚는다.

5. 시루나 찜통에 솔잎을 펴고 송편이 서로 닿지 않게 한 켠 놓고 위에 솔잎을 한 켠 놓는다.

그 위에 송편, 솔잎 순으로 반복하여 놓고 30분 정도 찌다. 익으면 냉수에 재빨리 씻어서 솔잎을 떼고 소쿠리에 건져서 물기를 빼고 참기름을 발라서 그릇에 담는다.



동영상 보기 : 집에서 송편 만들기 (유튜브 쿠키다스) 참고

01.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해요

기도 | 언제나 크신 팔로 저희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해 주세요.

말씀 | 느헤미야 2:17~1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바사(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신(은혜로운) 손길로 자신을 도우신 일을 전하며 성벽을 함께 세우자고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함께하기로 동의했어요.

나눔 | 1.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7절) 그는 어떤 말을 전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나요?(18절)

2.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마음을 모았듯, 우리 가족이 마음을 모아 다시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기꺼이 하나 되어 쓰임받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방해를 넘어서는 믿음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 느헤미야 6:15~16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원수)이 위협하며 방해했기에 유다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일했어요. 그럼에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나눔 | 1.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대적과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5~16절)

2. 하 어떤 경우에 나는 신앙적 결단을 포기하고 싶어지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끈기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반대자가 되지 않고 동역자가 되게 해 주세요.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한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말씀을 읽고 죄를 고백해요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세요.

말씀 | 느헤미야 9:1~3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가르침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킨 후, 백성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단호하게 버렸어요. 또한 낮 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세 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나눔 | 1.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나요?(1~3절)

2.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 그리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실을 버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QT와 매일 기도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온전한 예배를 위해 준비해요

기도 | 하나님, 저희를 변함없이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햇살 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비추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말씀 | 느헤미야 12:27~3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준비했어요. 봉헌식에 앞서 느헤미야는 찬양대로 섬길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준비했어요.

나눔 | 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27절)

2.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가 어떤 성취나 결실을 거두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5.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겸손히 배우게 해 주세요.

말씀 | 호세아 2:19~2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아내)로 여기세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치 결혼하는 신랑처럼 그들을 신부로 맞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나눔 | 1.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19~20절)

2.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부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내게 어떤 태도와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6.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하늘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세요.

말씀 | 호세아 6:1~3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예언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며 호소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길이기 때문이에요.

나눔 | 1. 죄와 심판으로 찢기고 상한 백성에게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3절)

2. 일상의 어긋난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기도 | 하나님! 죄로 인해 저희를 벌하시지만,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게 하시고, 혹시 죄에 빠졌더라도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빨리 돌이키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묵은땅 같은 마음을 새롭게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 주세요.

말씀 | 호세아 10:12~13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이스라엘의 죄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하나님은 인내를 그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기로 하셨습니다. 심판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묵은땅을 갈아엎듯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악을 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나눔 |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은땅을 기경하라(갈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땅’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12절)

2. 내 안에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죄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죄로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습관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을 심고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즐거이 연합하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기도 |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족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 | 갈라디아서 2:2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나눔 | 1.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이제 자신 안에 누가 사신다고 했나요? 또한 자신은 어떻게 산다고 고백했나요?(20절)

2.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내가 과감히 포기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